

9년만에 정규앨범 낸 거미, 5개 도시 전국투어

R&B 디바 거미가 9년 만에 정규 앨범을 내놓고 전국투어에 나선다. 2008년 'Comfort' 이후 9년 만이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16일 "거미가 6월 다섯 번째 정규앨범을 내고 서울과 부산 등 5개 도시 투어 콘서트를 펼친다"고 밝혔다. 거미의 이번 앨범에는 길이 총괄 프로듀서로 나서 화제다.



# JYJ 완전체, 물건너 가나

박유천 "9월 결혼 후 가정생활에 집중" 김재중·김준수는 솔로활동에 무게 뒤

한류스타 박유천이 9월 결혼하면서 소속 그룹 JYJ의 '완전체'는 당분간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유천이 결혼 후 연예계 복귀보다는 결혼과 개인생활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나타내 더 이상 연예활동에 미련이 없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잇따라 피소되면서 조성된 분위기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스포츠동아 13일 특종보도 참조)

우선 결혼을 둘러싸고 박유천과 또 다른 멤버인 김재중, 김준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박유천의 결혼 사실이 알려진 이튿날인 14일 김재중은 자신의 SNS를 통해 'NO'라는 이미지를 공개해 그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두 멤버는 불과 며칠 전 박유천에게서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인생은 한 번뿐이니 널 위해 많이 생각하고 결정하라"는 조언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유천은 멤버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전해졌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16일 그의 한 측근은 "세 사람은

15년 가까이 형제처럼 지낸 사이다. 굳이 만나지 않아도 말이 통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류에 비해 'JYJ 완전체 활동'은 향후 2~3년 안에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나아가 JYJ가 사실상 해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는 멤버들의 의지에 달렸다. 이에 따라 박유천이 8월26일 제대한 후 9월 결혼해 가정에 집중하고, 김준수가 2018년 11월 제대한 후 멤버들이 모여 다시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그 사이 멤버들은 각기 개인활동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미 각자 솔로활동으로 충분히 입지를 다지고 정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JYJ는 2004년 동방신기로 데뷔한 후 2010년 JYJ로 활동하면서 월드스타로 떠올랐다. JYJ의 그룹 활동은 2014년 콘서트가 마지막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 박유천의 결혼으로 그룹 JYJ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김준수도 군 복무 중이어서 이들의 그룹 활동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왼쪽부터 JYJ 멤버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 스포츠동아DB



## 연예뉴스 스테이션

윤제문, 영화 '아빠는 딸' 음주 인터뷰 논란



윤제문

배우 윤제문이 지난해 음주 운전으로 이어 '음주 인터뷰'로 논란에 휘말렸다. 윤제문은 최근 주연작 '아빠는 딸'의 13일 개봉에 앞서 각 언론 취재진과 인터뷰에 전담 마신 술이 채 깨지 않은 상태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인터뷰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윤제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태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영화와 소속사 관계자들이 대신 사과해야 했다고 당시 취재진이 밝혔다. 논란 속에서 윤제문은 '아빠는 딸' 개봉 첫 주말인 15일과 16일 서울 시내 16곳의 극장에서 관객 무대인사를 진행했다.

김의성 "설리 SNS 게시물 도덕적 문제 없다"



김의성

배우 김의성이 결혼 예프엑스 출신 기자 설리가 SNS 게시물로 일부의 비난을 받는 데 대해 "상식과 명칭의 차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최근 '리얼 맥심' 화보 인터뷰에서 "(설리의 SNS 활동이)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선택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표현하는데 '감 놔라 배 놔라' 하고,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등으로 충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라며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주권의 침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우결" 폐지 논의된 바 없다

MBC "우리 결혼했어요(우결)가 사흘 만에 다시 폐지설에 휩싸였다. 스태프의 가상 결혼생활을 보여주는 예능프로그램 '우결' 시간대에 5월부터 '오빠생각'이 편성된다는 게 폐지설이 다시 제기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MBC 측은 16일 "우리 결혼했어요" 폐지는 논의된 바 없다. '오빠생각' 방송을 준비 중인 것 맞지만 편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결'은 앞서 13일에도 폐지설에 휩싸인 바 있다.

갯세븐 새 앨범 '플라이트 로그' 30만장 판매

그룹 갯세븐이 새 앨범 '플라이트 로그:어라이벌'로 30만장의 판매고를 돌파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3월13일 발표한 앨범이 출고량 기준 12일 30만장을 돌파했고, 14일 31만장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전작 '플라이트 로그:터블런스'의 총 판매량인 23만장을 뛰어넘은 수치다. 갯세븐은 앞서 '플라이트 로그:어라이벌'로 선 주문 22만장을 기록했으며, 가온차트와 한터차트 3월 앨범차트 1위에 올랐다.

한국영화 상영 안된 베이징 국제영화제

16일 막을 올린 제7회 베이징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상영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영화 조차위원회 측은 "정치적 결정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날 할리우드 리포트에 따르면 베이징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측은 "특정 국가를 선호하지 않고 전 세계 영화 컬렉션을 지원한다"며 이 같이 해명했다. 앞서 중국 측이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영화의 영화제 초청을 취소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바 있다.

## '제2의 김태리'를 찾아라

영화계, 박찬욱 감독처럼 신인찾기 열중 '강철비' 원진아, '옥자' 안서현 새 얼굴

박찬욱 감독이 발굴한 신예 김태리처럼 새 얼굴을 찾으려는 연출자들의 눈길이 분주하다. 관객에 알려지지 않은 신인으로 작품에 대한 호기심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이자 낮은 얼굴을 통해 감독의 세계를 완성하려는 시도다.

영화 '신세계'와 '대호'의 박훈정 감독은 올해 여름 촬영을 시작하는 신작 '마녀'(가제·제작 영화사금월)에서 신인을 발탁할 계획이다. 영화는 살인병기로 자란 여성의 범죄극이다. 여주인공의 역선이 주를 이루는 작품으로 감독은 이를 소화할 만한 적임자를 찾고 있다.

'변호인'을 만든 양우석 감독의 차기작 '강철비'의 여주인공도 신인이다. 박도원, 정우성과 함께 영화를 이끄는 주역은 신예 원진아. '강철비'는 제작비 100억원 규모 대작인데다 100만 관객 동원에 성공한 연출자의 두 번째 영화인만큼 스타급 여배우들이 참여를 희망했던 작품. 하지만 감독과 제작진은 관객에 생소한 원진아의 이미지가 오히려 더 어울린다고 판단해 과격적으로 발탁했다.

원진아는 '밀정' 등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전부다. 치열한 오디션을 통해 '강철비'에 합류한 그는 의도치 않게 남한으로 넘어



원진아

온 개성공단 북측 직원 라민경 역을 맡아 박도원, 정우성과 함께 긴박한 첩보전을 완성한다. 봉준호 감독 역시 대작 '옥자' 촬영을 앞두고 여주인공 미자 역을 뽑는 까다로운 오디션으로 10대 연기자 안서현을 발탁했다. 고유한 이미지가 구축된 배우 대신 낯선 매력의 연기자를 발탁해 극중 인물에 최적화된 모습을 연출하겠다는 의도다.

감독들이 찾아낸 신인은 그대로 한국영화에 상당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실제로 김태리는 15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아가씨'로 데뷔한 직후 스포트라이트 속에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있다. 임순례 감독의 '리틀 포레스트' 주연에 이어 장준환 감독의 '1987' 촬영을 곧 시작한다. 앞서 '은교'의 김고은, '검은 사제들'의 박소담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목받아 주연급 배우로 활약하고 있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16일 "현재 20대 여배우가 필요한 영화 시나리오가 대부분 김태리에게 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결출한 신인의 등장은 제작진이나 관객에게 선물과 같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f024@donga.com

## 엽기적인 그녀, 중간광고 품수?

5월 방송 앞두고 30분씩 나눠 방송 예고

SBS가 5월 시작하는 새 월화드라마 '엽기적인 그녀'의 한 회 분량을 나눠 방송하며 그 사이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이에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금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BS는 '엽기적인 그녀'의 회당 약 70분 분량을 절반으로 쪼개 처음 30여분이 끝나면 광고를 내보낸 뒤 남은 분량을 이어 방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블채널이 프로그램 방영 도중 광고를 삽입하는 실제 중간광고와는 형식적으로 다른 방식이다.

이 같은 시도는 현행 규제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선 금지하는 중간광고 규제를 '폼수'로 피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된다. 1974년 정부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낮방송을 폐지하며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도 금지했다. 올해 1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없다. 각 지상파 방송사들은 그동안 중간광고 도입을 주장해왔다.

'엽기적인 그녀'의 방송 분량 분할 방식은 제작 단계의 혼선도 일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드라마는 당초 20부작으로 기획됐지만 촬영 도중 16부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이야기가 수정된 상태에서 30분씩 나눠 방송할 경우 윤호제 작가가 70분에 맞춰 집필한 에피소드는 또 한 번 편집 과정을 거쳐야 한다. 원래 1개였던 엔딩 장면을 2개로 만들어나가기 때문이다. 최대한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이야기를 반으로 나눠 하는 편집의 묘미를 발휘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한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는 "작가들은 이야기 흐름에 맞춰 집필한다. 한 회를 둘로 나누게 되면 작가의 의도와 달리 이야기가 조각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수익성 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방식을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방송사의 고민을 드러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연예계 스타들이 다양한 추모 방식으로 세월호 3주기를 보냈다. 정우성(왼쪽 위사진)과 윤종신(왼쪽 아래사진)은 SNS로, 이승환(오른쪽 사진)은 공연으로 아픔을 함께 했다. 사진출처 | 윤종신·정우성 인스타그램, 이승환 페이스북 캡처

## "0416...잊지 않겠습니다"

수지·정우성 등 세월호 3주기 추모 방송가도 세월호 추모 다뤄 줄이어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꼬박 3년이 지났다. 시민들은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설치된 안산 화랑유원지와 진도 팽목항, 그리고 목포 신항에서 '노란 물결'을 이뤘다. 전국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었던 스타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픔을 함께 했다. 방송가도 추모 열기를 더했다.

● "리멤버 2014. 4.16"…SNS는 노란 물결

송혜교와 정우성, 이시영, 이동휘, 이광수 등 연기자들과 수지, 지드래곤, 정용화, 윤종신, 이승환, 바다, 손담비 등 가수들은 SNS를 통해 참사를 기억했다.

송혜교는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색 배와 그 밑에 0416이라고 적인 이미지를 공개했다. 정우성도 노란 리본을 SNS에 올렸다. 수지와 손담비는 '리멤버 2014. 4.16'이라는 메시지로 그날의 아픔을 상기시켰다. 연기자 박해진은 전남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조용히 추모했다. 이날 소속사 관계자 3~4명과 함께 팽목항을 찾았고, 이 모습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가수 바다는 "모두가 기억할 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다"며 희생자를 기렸다. 이승환은 "3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세

월호의 진실은 아직 인양되지 못했다"면서 "훗날 진실이 밝혀지고 온전한 그림으로 그분들의 님을 어루만져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썼다. 그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3주기 추모 촛불집회에서 추모곡을 불렀다. 연기자 이시영은 정호승 시인의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는 시를 인용해 추모했다. 세월호 그림을 그려온 솔비는 새로운 작품을 공개하며 "3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 아픔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진실을 인양하라"…'pray for you'

방송가에서도 추모 물결이 이어졌다. SBS는 이날 '인기가요' 생방송 대신 '그것이 알고 싶다'를 재방송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날 밤 '세월호, 3년 만의 귀환-희망은 다시 떠오를 것인가'에서 1073일 만에 수면 위로 떠오른 세월호를 집중 공개했다. KBS 1TV는 작가 김훈과 함께 특집 다큐 '3년, 세월호의 시간'을 편성해 3주기를 추모했다.

가수들은 추모곡으로 참사를 기억하며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했다. 가수 조관우는 '프레이 포 유'를 선보였다. 조관우는 2014년 추모곡 '풍등'을 발표하고 지난해에는 참사 3주기 추모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작곡가 김형석도 추모곡 '그리움 만지다'를 가수 나윤권과 함께 노래했다. 가수 권진원은 '사월, 꽃은 피는 데를', 김장훈은 희망을 담은 노래 '광화문'을 각각 내놨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